

인류학의 거울에 비춰본 한국인의 삶

「한국문화론」(전4권) 펴낸 전경수교수

“세계화의 외침이 한창인 지금 이 책을 펴낸 것은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나’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강조입니다. 나를 모른다면 세계화는커녕 오히려 나는 ‘증발’되고 말지요. 이 땅에서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문화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학’의 출발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한 나 자신 비춰보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 책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형상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모든 학문의 꼭지점에는 항상 ‘인간의 삶’이 있게 마련이다. ‘문화’라는 중심개념이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 어디에나 관심을 두는 ‘인류학’의 출발 역시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한 나 자신 비춰보기”로부터 시작된다.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보여온 전경수 교수(47, 서울대 인류학)가 최근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해 펴낸 「한국문화론」(전4권, 일지사)은 그런 점에서 한국과 한국사람, 한국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다. 한국문화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문학과 역사, 예술의 분야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전교수의 저서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의 생동하는 문화를 인류학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학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의 나 자신 확인하기

“세계화의 외침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문화론」을 펴낸 것은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나’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나를 모르면 세계화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증발’되고 말지요. 다른 사람들의 거울로 비춰본 나의 모습들을 하나씩 짚아보면 진짜 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문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제 한국문화 이해의 틀에 방법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다소 들쭉날쭉한 느낌을 주지만 그동안의 한국문화 이해에 대한 개별적인 논문들을 전체적인 구조틀로 짜본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문화’의 개념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쌓아온 전교수의 연구결과는 상고편, 전통편, 현대편, 해외편 등의 4권에서 방대한 분야를 아우른다. 선사시대와 고대문화에 대한 논의를 담은 「상고편」은 ‘민족문화의 기원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에 5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전통편」은 한국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전통’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9편의 논문을, 「현대편」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 특징을 포착한 ‘도시중산층 아파트촌의 소비자 경제생활’ 등 10편을, 식민지 시대 이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한 해외동포, 교포사회의 문화를 논한 「해외편」에는 7편의 논문을 각각 실고 있다.

일瞥 보기에 방만하게 걸쳐 있는 듯한 영역은 일관된 연구방법론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즉, 인류학이란 걸로 드러난 유형의 흔적을 찾기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고뇌, 희열 같은 정신세계를 탐구하므로 ‘없음’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전교수는 그것을 “바둑판의 빈칸이 엄청난 전투와 견제를 예고하는 것과 같음”으로 비유한다. 예컨대 전교수는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귀납적인 설명보다는 ‘포퍼식 반증주의’의 연역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한 논리적 치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논문이 전교수 스스로 “세계에 내보내도 부끄럽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라고 자평하는 「상고편」의 ‘선사문화의 변동과 소금의 민속고고학’이다.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소금의 공급’이란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한반도에서의 줄문→무문토기시대로의 문화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는 예리하고 치밀하다.

이렇듯 민족문화의 기원 연구로부터 선사시대, 신라사회와 을나신화의 문화전통에 이르기까지 「상고편」에서 다룬 논문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상고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형성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전교수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단군신화 혹은 ‘암각화’나 신라토우, 장제, 묘제 같은 주제들을 이미 예정해두고 있다.

소설같은 깊은 ‘정서’ 울리는 우리문화

전교수가 무형의 우리문화를 찾아 형상화시키는 작업은 때로 소설보다 더 깊은 정서를 울리곤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동적’이기 때문일까. 「전통편」에 실린 ‘중족집단의 신분 이동과 개인역할’이라는 논문에서는 허구를

떠어넘는 진실의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안동에 거주하는 영양 천씨(穎陽千氏)를 중심으로 전통사회에서 비양반계층이 사회적 인정을 통해 양반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한국인의 삶을 고스란히 천씨집안에서 읽을 수 있는데,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구조, 위계적인 신분사회 전통에 대적한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향 등이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사미의 대바구 혼인’에 대한 연구에서 진도 하사미의 ‘대바구’라 불리는 혼인제도를 둘러싼 특이하고도 질박한 우리네 삶의 모습을 마치 한편의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전교수가 아예 주민등록까지 옮겨놓고 1년6개월 동안 ‘장기거주학습’에 의해 연구했던 ‘대바구’ 혼인제도는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죽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이는 재혼제도를 일컫는다. 새로운 남편 ‘대바구’는 ‘대신 박는다(성교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대부제로 불릴 수 있다. 하찮게 보이는 조그만 마을의 이 ‘기이한’ 민속은 부계 혈통사회의 가계 계승이라는 전통문화의 단면을 일깨우는 셈이다.

한국사회의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찾아낸다. 전교수가 「현대편」에 수록한 글들은 중산층 아파트촌에서부터 난지도의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과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문제, 생태계 불



균형과 공동체문화의 위기의식 등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전통적으로 인류학자들이 가족과 의례, 소농경제, 부족정치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새로운 주제의 과감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업과 노동, 국제관광, 매스커뮤니케이션, 보건과 의료, 집단주거, 이민, 교통, 에너지, 환경, 예술과 영화 등이 인류학의 중심 개념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주제들입니다. 나 자신의 연구관심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셈이지요. 사람의 삶이 다양하니까 연구도 광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양한 삶에 대한 전교수의 관심은 ‘인류학자가 쓴 환경론’이란 부제가 붙은 「똥은 자원이자다」와 「관광과 문화」 같은 저서를 비롯해 베트남 포로수용소 문제와 고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칠 바 없이 펼쳐진다.

「해의편」에는 전교수의 ‘인간의 삶’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심이 집약돼 나타난다. 우리의 현대문화는 어쩔 수 없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의식은 “전쟁강제에 의해 간도와 연해주 등으로 유랑생활을 시작한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다. 또 5백만 해외동포라는 집단이 분단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단시대 문제의식도 그 관심

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전교수가 택한 집단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좀더 주변적인 해외 한국인이다. 서울대에 학문공간을 마련한 후 대학기 방학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찾아다닌 것도 그의 이러한 역사의식과 인간사랑의 실천적 학문태도에서 비롯됐음을 짐작케 한다.

“학문은 곧 인생의 배수진”

남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섬의 다양한 인간 삶을 깊이있게 연구한 폴란드 출신 인류학자 말리노브스키를 학문적 전거로 삼고 있는 전교수에게 “학문한다는 것은 인생에 배수진을 친 것”과 같다. 실제 지난해 여름 현지 연구차 갔던 베트남 오지에서 식중독으로 사경을 헤맸는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좋아하던 술도 못마시는 알콜 알러지에 고춧가루 알러지까지 겹쳐 고생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또다시 가고 싶은 곳은 베트남이다. 그곳의 ‘관습법’을 연구하겠다는 욕심에서다.

끝간대를 모르는 전교수의 학문적 관심과 인간에 대한 탐구심은 고문헌에서 해외각지의 관련논문에 이르기까지 연구실에 빼곡히 차 있는 자료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술한 현지 조사 결과 얻은 수천장의 슬라이드 또한 귀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연구과정에서 만난 ‘핵심제보자’들 역시 무덤까지 같이할 소중한 친구이다.

지난해만 「문화의 이해」 「인류학과 의 만남」이라는 두권의 저서를 펴냈고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저역서를 학문적 정열로 증명해오던 전교수의 치열한 탐구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책의 머리말에서 약속했듯 ‘한국문화론’의 틀을 완전히 갖추기 위한 질과 양의 보완으로 제대로의 형상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한국인론」도 쓸 계획이다. 더불어 월간 「무역」에 연재중인 ‘세계의 상거래 관습’도 책으로 묶어내고 싶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개념치 않고 자유분방하게 넘나드는 전교수의 학문적 열정이 식을 날은 아마도 없을 듯싶다.

— 김지원 기자

나무들

조이스 킬머 지음 / 김귀화 옮김 / 이해인 수녀 해설



이해인 수녀님의 애송시...나무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런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의 단물 흐르는 젓가슴에
끓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앞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칼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느님뿐

한솔미디어



한솔기획

나태한 정신을 서릿발처럼 일깨우는,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의 진주.
여러분의 원고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리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스: 722-3866